

# 공부하기 딱 좋은 가을 ... 문화 예술 강좌 '강추'



황현산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조금만 발품을 팔면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수강료도 저렴한 편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일 'ACC 시민아카데미' 하반기 강좌를 시작한다. 문학 평론가 황현산, 서평관 로자 등 강사진이 눈에 띈다.

상반기 인기 강좌는 시즌 2를 이어간다. 라이브 연주와 강좌가 결합된 '라이브 클래식 II'와 '유라시아 음악순례 II'가 진행되며 로자와 황현산이 강의하는 '현대적 고전을 찾아서', 오동진 등이 강사로 나서는 '시네마천국 II'가 진행된다.

새로운 강좌도 선보인다. 김홍도·신윤복·장승업 등을 만나는 '조선화가 10인 이야기'(박정애), 시대별 그림과 함께 동시대를 풍미했던 클래식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콘서트형 미술 강의 '피아노가 흐르는

문화전당 'ACC 아카데미' 개강... 직장인 강좌도 개설  
전남대박물관 '휴먼&뮤직-열두 가지 색으로 특하다'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 서양미술사 특강 '이탈리아'



로자

임진모

황덕호

구지훈

서양미술사(김경), ACC 전시와 비엔날레 등을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전시 현장 읽기'(김노암) 등이 눈에 띈다.

직장인을 위한 강좌 '예술'은 하반기 아카데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정유진·함석헌·서정실씨 등이 강사로 참여해 악기를 직접 연주하고 클래식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음악'편과 평론가 조이한·김강씨가 함께하는 '미술'편으로 운영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크리에이티브 일러스트', '크리에이티브 북디자인', '뮤지컬 보컬 살롱'이 개설됐다.

그밖에 전시와 연계된 '부모를 위한 실 크로드'와 젊은 부모들을 위한 '그림책 인문학'도 준비돼 있으며 '셰익스피어 in ACC'는 문학, 연극, 영화 전문가를 초청해서 400주년을 맞는 셰익스피어를 재조명한다.

6일부터 접수하며 ACC 홈페이지(www.acc.go.kr)와 콜센터(1899-556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01-4026.

지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전남대박물관 문화 강좌는 'Human&Music-열두 가지 색으로 특하다'가 주제로 재즈, 대중음악,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난다. 강의는 오는 21일부터 12월 7일

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2시~4시·12주 과정)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강의 주제는 '음악, 인간에게 무엇인가'(전남대 음악국악교육과 교수), '남도의 소리를 듣다'(김옥란 전남도립국악단 부단장), '클래식 음악으로의 초대'(장일범 음악평론가), '볼쇼이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지젤'(박재성 음악평론가), '간축과 음악, 공간을 노래하다'(김억중·한남대 건축학과 교수), '역사로 보는 뮤지컬의 이해'(원종원·뮤지컬 평론가), '역사학자 에릭 홀스봄과 재즈'(황덕호·재즈칼럼니스트), '시대를 읽는 힘, 대중음악(임진모 음악평론가) 등이다.

음악과 관련한 영화 및 다큐멘터리 상영(오후 4시)은 무료로 진행된다. 영화 '불멸의 연인', '말할 수 없는 비밀', '맘마미아', '셰시봉' '서편제'와 다큐 '여름날의 재즈', '땡큐 마스터 김', '베를린 필과 춤을' 등을 만날 수 있다. 해외 답사는 유럽 국가를 둘러볼 예정이다. 문의 062-530-3585.

클래식 음악감상실 '다락'은 정규 클래식 프로그램과 함께 미술 강화를 진행한다. '다락'은 지난달 처음으로 목포대 조은정 교수를 초빙, 그리스 로마 미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장일범

이탈리아 미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서양 미술사' 특강 두번째 강좌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매주 화요일 오후 7시50분)까지 6주 과정으로 열린다. 강사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 시각예술과 석사 과정을 거쳐 동 대학원에서 '조반니 벤틀리' 2세 시대의 예술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다양한 기교와 강연 등을 하고 있는 구지훈씨다.

강의 내용은 '피렌체, 르네상스를 잉태한 빛과 선의 도시', '베네치아, 대운하에서 태어나는 인상파의 전조', '밀라노, 자연주의의 반석 위에 얹어진 천재의 손놀림-세밀화가들에서 카라바조까지', '로마, 상처 입은 영원의 도시에서 완성된 고전주의' 등이다. 수강료 7만원(다과 제공). cafe.daum.net/darakclassic 문의 010-5795-96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지난 3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ACC) 예술극장1. 무대 위 조명이 켜지자 노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어린이들이 사뿐 사뿐 걸어 나왔다. 바이올린, 플루트, 오보에 등을 하나씩 들고 등장한 아이들은 광주와 목포지역 어린이 80여 명이 주축이 된 '꿈의 오케스트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음악가로 키워낸 '엘 시스테마'를 본뜬 것으로 소외계층과 일반 어린이들로 구성됐다. 공연은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객석을 가득 메운

트라-장록 속 악기를 꺼내드립니다'의 파일럿 프로젝트. 바쁜 일상으로 음악에 대한 꿈을 접었거나 공연할 기회가 없었던 생활음악인들을 오케스트라로 '묶어' 일상의 행복을 되찾게 해주는 네트워크장(場)이다. 특히 예선을 거친 6개팀이 참가하는 ACC 시민오케스트라 경연대회(10월15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날 공연에 앞서 열린 오프닝 세미나 '생활 속 음악, 음악과 커뮤니티'는 시민오케스트라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 ACC 시민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맡은 김은선 총감독은 현재 이 지

## 반갑다! ACC 시민오케스트라 (문화전당)

관객들은 그동안 갖고 묶은 어린이들의 연주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2부 순서인 서울시민필하모니 무대였다. '문이 열리고 음악이 시작된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공연은 채은석씨의 지휘로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 등 아리아 모음곡, 영화 '스타워즈'의 테마 모음곡을 선사해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서울시민필하모니는 여느 오케스트라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국내 유명 오케스트라들이 음악을 전공한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했다면 시민필하모니는 음악이 좋아서 악기를 배우거나 즐기는 아마추어들이다. 단원중에서는 전문 음악인거나 배우 등이다. 몇 년 전 안방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트'의 주인공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서울시민필하모니 광주 공연은 악기를 가까이 하는 생활 음악인들을 위한 'ACC 시민오케스

터에는 전남대 외대 관혁악단 등 약 50여개의 시민오케스트라가 있지만 전문연습실과 운영비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승현 세종문화회관 문화예술본부장은 "시민오케스트라는 관객과 전문 오케스트라의 관계를 이어주는 문화도시의 자원이야 할 수 있다"며 지역사회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처럼 시민오케스트라는 삭막한 도시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물들이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일까, 이날 이석원(서울대 음대)교수의 마무리 발언이 진한 여운을 남겼다.

"베를린 필하모니가 오랜 세월 글로벌 오케스트라로 명성을 떨치는 힘은 시민오케스트라에 있습니다. 250여 년 전 창설된 세계 최고(最古)의 민간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하우스가 그런 경우입니다. 독일에는 방직공장이나 은행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가 연중 열릴 정도로 일상화 됐어요."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 "지역문화콘텐츠 살리고 활성화 노력 필요"

### '심미안' 등 지역 출판사·문화 잡지 관계자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 결성

매년 지역도서전 열기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 문화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콘텐츠를 살리고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와 문화 등 사회 제 분야가 수도권으로 집중화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곳'의 삶과 문화를 알리는 산파역인 지역문화콘텐츠를 살리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전국의 지역 출판사, 문화 잡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제주 한라도서관에 모여 창립 총회를 열고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이하 지역출판연대)를 결성했다.

이날 모임에는 광주의 '심미안'과 '전라도닷컴', 전주 '모악', 부산 '산지니', 대전 '월간 토마토', 수원 '더페이퍼', 춘천 '문

화통신', 청주 '도서출판 지직', 제주 '도서출판 각' 등 지역의 출판, 잡지 등 전국 각지에서 20여 곳 중소출판사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들 단체는 정관을 확정하고 지역출판연대 초대회장으로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를 선출했다. 이사는 송광룡 '심미안' 대표, 이용원 '월간 토마토' 대표, 최낙진 제주대 교수 등 10명을 뽑았다.

지역출판연대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출판물을 망라해 내년 제주를 시작으로 매년 한국지역도서전을 열기로 했다. 또한 순수 민간의 힘으로 '대한민국 지역출판대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지역문화잡지의 문화콘텐츠를 전시하고 유통하는 '지역문화콘텐츠전'을 열어 지역 간 소통과 교류에 힘쓰기로 했다.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청년ing께, 광주편- 빛이중헌디' 포럼 9일 개최

광주시 청년문화기획자 육성사업 '유망주2016' 두번째 네트워크 포럼 '청년ing께 ver.3. 광주편- 빛이중헌디'가 오는 9일 오후 7시 북구문화의 집에서 열린다. 포럼 참여자는 광주 청년문화기획자 육성사업의 '유망주 2016' 문화기획자 12명과 예비기획자, 광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선배기획자들이다. 1부에서는 청소년 축제 레드페스타

를 기획한 청년문화허브 정두용 대표와 물총축제를 진행 중인 청년문화꾼 이지훈 대표의 이야기를 듣는다. 2부에서는 '2016 유망주'가 진행한 1차 공동프로젝트 '모타브러'를 평가하고 10월 8일 우치동물원에서 열리는 2차 공동프로젝트 '우치(uchi zoo) Like?'를 소개한다. 문의 062-225-201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감농 Set, 다담 Set, 우전감로, 감사 Set

한국제다  
10만명의 자가농장과 60여년의 제다  
各種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5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